



2018년 제 223 차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 총회장인 빌마리 쥘트론 -올리비에리(Vilmarie Cintron-Olivieri) 장로와 신디 콜만 (Cindy Kohlmann) 목사는 미국장로교에 속한 전체 교회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책으로 “*Neighborhood Church: Transforming Your Congregation into a Powerhouse for Mission*” (이웃을 위한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선교를 위한 발전소로 변화시키기)을 추천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크린 밴 테이튼호브(Krin Van Tatenhove)와 롭 뮐러(Rob Mueller)가 공동집필한 이 책은 미국장로교 교인들, 그리고 중간공의회 및 총회 직원들이 읽고 생각하고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정의의 가치들을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까요? 신앙공동체로써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가치들은 어떻게 하면 더욱 밝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바로 그곳에서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Neighborhood Church*는 교회들이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가족들 및 이웃들과 활기있게 교류하는 커뮤니티 파트너가 되도록 고무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모든 주류 교단들의 교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킨 부분적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 주변의 커뮤니티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밴 테이튼호브 목사와 뮐러 목사는 지역 교회들이 이런 현상을 뒤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지역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안정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대담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밴 테이튼호브 목사와 뮐러 목사는 두 사람이 합쳐 육십 년이 넘는 지역교회 목회 경험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ABCD Program)으로부터 얻은 지혜, 그리고 흥미로운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를 성육신 사역으로 초청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실제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들을 제공해 주며, 경청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열매 맺는 파트너십을 고무시키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종합 공간을 장려하고, 장기적인 비전들을 지지해 줍니다. 밴 테이튼호브 목사와 뮐러 목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된 부흥을 촉발시키고, 성육신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만 출판되었으며, Amazon 이나 PCUSASStore.com 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www.pcusastore.com